

울산과 일본 요카이찌시(四日市)의 환경시설 비교

양성봉

울산대학교 화학과

환경선진국인 일본의 공업도시의 환경보호시설에 관한 소개를 할 예정이다.

四日市(유키카이찌시)는 일본 미에(三重縣)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나고야(名古屋)공업지대의 일부이기도 하다. 유키카이찌시는 1950년대 일본에 4대 공해병이 발생한 지역 중 한 곳으로 다른 3곳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발병인데 반해 이곳은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천식환자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유키카이찌시는 혼다자동차, 자동차 수출용 부두, 곡물 및 화학물질 수출입항, 석유화학 및 정유공장 등 울산시와 매우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는 곳이기도 하다. 1994년에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도시로서 유엔에서 Global 500상을 받기도 하였고 개발도상국의 환경오염 방지기술을 교육하기 위한 UN의 연수원이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은 유키카이찌시의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해 이 지역의 자치단체가 제정한 법령이 계기가 되어 일본 전국에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대기오염방지법의 역사와 현재 유키카이찌시의 산업시설에 설치된 여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소개 및 최근 일본의 공해방지에 힘을 쓰고 있는 분야 등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며 울산 지역의 공해저감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